

“매 경기 ‘불도그’처럼 던지려 노력”



지난 2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프로야구 KBO리그 KIA와 키움의 경기. 6회말 무실점 호투를 펼치고 있는 KIA 선발투수 토마스 파노니가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키움전 6이닝 무실점...32일 만에 승리 쟁긴 파노니

“양현종 조언 도움...커브로 자신감 찾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토마스 파노니(28)가 32일 만에

승리를 쟁겼다.

파노니는 2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4피안타 8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2승(2패)째를 수확했다.

지난달 22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첫 승을 올린 뒤 4경기 32일 만에 올린 승리였다.

파노니는 그동안 호투에도 불구하고 팀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승수를 쌓지 못했다.

특히 8월엔 두 경기에서 각각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으로 잘 던지기도 승운이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파노니는

자신의 승리보다 팀 승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수였다.

그는 “그동안 승운이 많이 안 따라줬는데 최형우나 김선빈 등 팀 동료들이 승리를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위로해줬다”면서 “야구는 팀 스포츠다. 제가 승운이 없다고 해서 특별히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승리를 쟁긴 파노니는 다양한 구종을 섞어 던진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파노니는 98개의 공을 던졌는데 커터가 37개를 가장 많았고, 직구 33개와 커브 23개를 던졌다. 체인지업도 5개를 던졌다.

파노니는 “2승을 올린 것도 좋지만 투구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종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투구를 했던 것이 주요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몸 상태가 좋다. 커브나 커터 같은 변화구가 잘 들어서 마운드에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이라고 자랑했다.

파노니는 최근 주무구인 커터보다 커브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커터도 좋은 공이지만 커브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 하나다”면서 “최근에 커브 비율을 늘리고 있는데 덕분에 삼진 비율도 올라갔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도에는 팀 동료이자 베테랑 투수인 양현종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파노니는 “양현종의 투구 운용 능력을 뺀다고 싶다”면서 “양현종은 KBO 리그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선수답게 제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 공격적 투구로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파노니는 “저는 아직 부족한 투수다. 그래서 매 경기 ‘불도그’(Bulldog)처럼 도망가지 않는 공격적인 투구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형 다이아몬드리그’ 실업육상 챔피언십 30일 개막

‘1인자’ 김국영 대회 MVP 도전

한국실업육상연맹이 만든 ‘한국형 다이아몬드리그’의 2022시즌 최종 승자가 전북 익산에서 탄생한다. 실업육상연맹은 오는 30일부터 9월1일까지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농민사랑 @2022 전북익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 단거리(남녀 100m, 200m, 400m 허들, 여자 100m 허들, 남자 110m 허들), 중·장거리(남녀 800m, 1,500m, 5,000m, 3,000m 장애물), 도약(남녀 멀리뛰기, 세단뛰기,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투척(남녀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해머던지기) 부문 1위에게 상금 400만원을 지급한다. 2위는 200만원, 3위는 100만원을 받는다.

부문별 순위는 세계육상연맹 스코어링 테이블로 계산한 포인트로 정한다.

더 좋은 기록으로, 종목별 1위를 차지한 선수가 더 높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전체 종목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받은 선수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돼 MVP 상금 200만원을 추가로 챙긴다.

올해 실업육상연맹은 ‘개별 대회’를 ‘시리즈’로 묶는 작업을 했다.

지난 3월30일에 열린 여수 1차 시리즈, 4월 대구 중별육상선수권, 5월 초 나주 2차, 5월 말 익산 3차, 7월 고성 4차 시리즈 등 5개 대회 결과를 집계해 익산 챔피언십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했다.

남자 100m에서는 한국기록(10초07)을 보유한 김국영(31·광주시청), 10초17의 선수 기준 한국 2위 기록을 작성한 김태호(29·파주시청)가 랭킹 포인트 1, 2위에 오르며 챔피언십 진출권을 얻었다. 둘을 포함한 총 8명이 챔피언십에 나선다.

남자 100m 결선은 30일 오후 6시20분에 열린다. 여자 100m 강다슬(광주시청), 중장거리 최강자 김유진(경산시청), 여자 원반던지기 한국기록(66m31) 보유자 신유진(익산시청), 남자 200m 고승환(국군체육부대), 5,000m 한국기록(13분42초98)을 보유한 백승호(고양시청) 등도 주목해야 할 선수다. /연합뉴스

순천시청 양궁, 회장기 단체전 준우승

여자 양궁 국가대표 최미선이 선봉에 선 순천시청이 올림픽제패기념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순천시청은 24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현대모비스를 맞아 1엔드를 56-55로 먼저 따냈으나, 2엔드 50-57, 3엔드 53-55, 4엔드 55-59로 내리 내주며 세트스코어 2대6으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최미선·이은경·박서진이 팀을 이룬 순천시청은 16강에서 청주시청을 세트스코어 6대0으로 제압, 8강에 올라 인천시청은 6대2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는 광주시청을 꺾은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6대2 승리를 거뒀다.

임동일 순천시청 감독은 “우승을 놓쳐 아쉽지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좋은



24일 열린 올림픽제패기념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 여자일반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한 순천시청 양궁팀. 왼쪽부터 박서진, 최미선, 이은경, 손예령 <전남도체육회 제공>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믿고 따라와 준 선수들과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

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는 25일부터 3일간 대학부 일정을 소화한다. /박희중기자



KLPGA 투어 상금랭킹 1위 박민지(왼쪽)와 대상 포인트 1위 유해란. <KLPGA 제공>

대상 1위 유해란, 상금 1위도 ‘정조준’

25일 개막 KLPGA 메이저 한화클래식서 박민지와 격돌

오는 25일부터 강원도 춘천시 제이드 팰리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한화클래식은 러프와 싸움이 될 전망이다.

대회를 개최하는 제이드 팰리스 골프클럽은 페어웨이의 폭을 좁히고 러프의 길이를 길러 정확한 샷이 아니면 그린 공략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코스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우승 상금이 2억5천200만 원에 이르고, 각종 포인트도 일반 대회 졸업인 만큼 개인 타이틀 경쟁에서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3승을 따내며 독주하는 듯했던 박민지는 상금랭킹 1위는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어느새 턱밑까지 따라잡혔다.

2위 유해란(21)이 불과 5천621만원 차이로 추격했고, 박지영(26), 임희정(22), 조아연(22), 지한솔(26) 등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산술적으로 박민지를 추월할 수 있는 선수도 6명이나 된다.

박민지는 이번 한화 클래식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다면 상금왕 경쟁에서 한 걸 여유를 누리게 된다.

대상 포인트 경쟁에서도 3위로 밀린 박민지는 1위 유해란과 격차를 단숨에

좁혀 대상과 상금왕 2연패의 든든한 밑천을 마련할 수 있다.

유해란은 상금랭킹과 대상 1위를 한꺼번에 손에 넣을 기회다.

그런 적중률 2위(80%)를 앞세워 평균타수 1위(69.9타)를 달리는 유해란은 최근 치른 6개 대회에서 5번이나 톱10에 이름을 올리는 등 상승세를 탔다. 21일 끝난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도 준우승했다.

“요즘 샷과 퍼트 감각 등 컨디션이 좋다. 어려운 상황에서 판단력이 좋아졌다”는 유해란은 “리프로 가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샷을 하자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플레이하겠다”고 러프와 정면대결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FIFA 월드컵 트로피, ‘레전드’ 히바우두와 한국 방문



24일 서울 영등포구 더 현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트로피 월드투어 행사에서 내빈들이 검은 천을 두르고 있던 트로피를 공개한 뒤 손타트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브라질의 우승을 이끈 히바우두 FIFA 글로벌 앰배서더,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박지성 전북 현대 어드바이저. /연합뉴스

25일 더 현대서 일반공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에 수여될 월드컵 트로피가 브라질 축구 레전드 히바우두(50)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월드컵 스폰서 코카콜라는 ‘FIFA 월드컵 카타르 2022 트로피 투어’의 하나로 한국을 찾은 월드컵 트로피의 미디어 공개 행사를 24일 더현대 서울 5층 사운드 포레스트에서 진행했다.

‘FIFA 레전드’ 자격으로 트로피와 함께 방한한 히바우두는 역대 최고의 새도 스트라이커로 꼽힌다. 히바우두는 2002 한일 월드컵에

서 브라질의 우승에 이바지해 한국과 인연도 있다.

한국 축구 레전드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과 박지성 전북 현대 어드바이저(위원)가 이날 오전 공항에서 트로피의 한국 방문을 환영했고, 오후 미디어 공개 행사에도 참석했다.

한국 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도 행사장을 찾아 3달 앞으로 다가온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다.

특히, 차 전 감독과 박 위원은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6번째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의 대업을 이룬 한국 대표팀을 향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였다. /연합뉴스

차 전 감독은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기념하는 취지로 등번호 ‘10’이 그려진 유니폼을, 박 위원은 역대 11차례 월드컵에서 한국이 넣은 아시아 최다 득점 수인 ‘34’가 들어간 유니폼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한국을 찾은 트로피는 가품인 ‘위너스 트로피’가 아닌, 결승전 직후 우승국에 수여되는 ‘오리지널 트로피’다.

올해 투어는 본선 진출국인 카타르를 포함해 전 세계 51개국에서 진행된다. 본선에 진출한 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다. 월드컵 트로피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